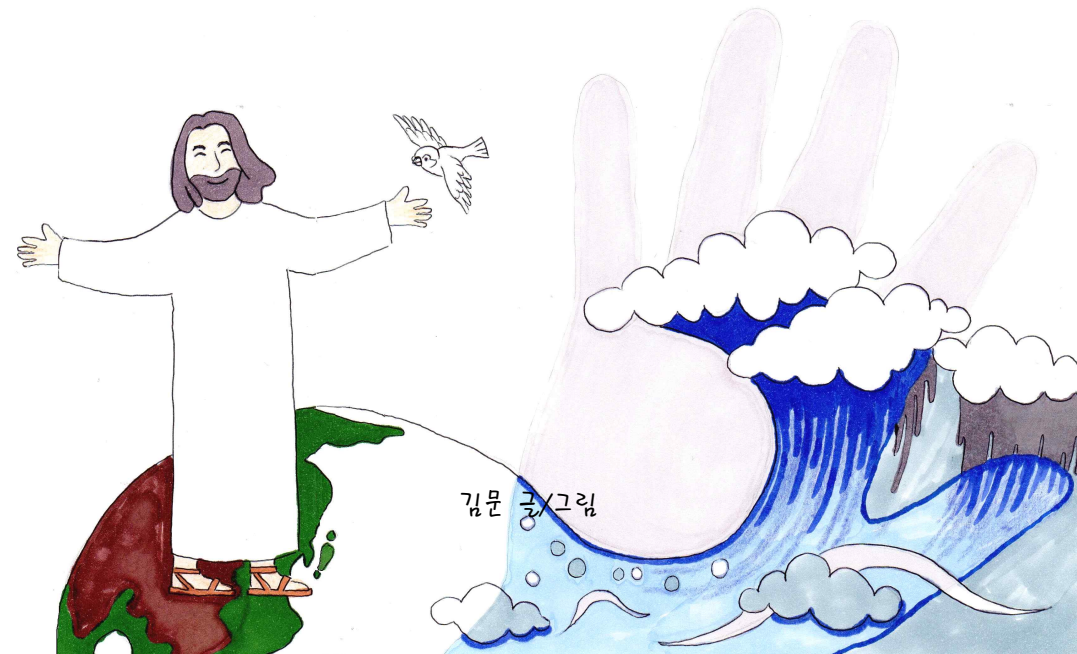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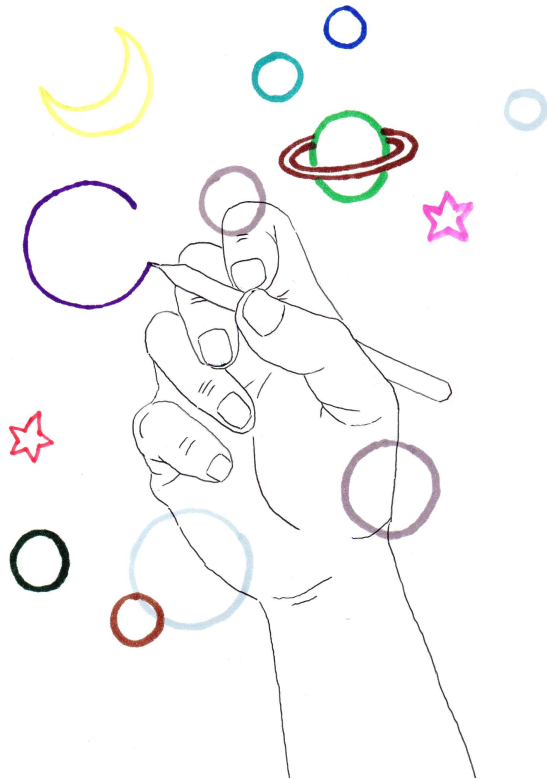


신학으로 배운 어린이 성경 동화 시리즈

1

하나님의 창조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허용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신학으로 배우는 어린이 동화

♥ 성경 동화

1. 하나님의 창조
2. 인간의 타락
3. 구원의 시작
4. 하나님의 백성
5. 이스라엘의 실패
6. 진정한 이스라엘
7. 예수님의 구원
8. 오순절의 성령님
9. 예수님의 증인들
10. 완성될 하나님나라

♥ 교리 동화

21. 종교, 계시, 성경
22. 삼위일체 하나님
23.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24.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25. 예수님은 누구신가?
26. 예수님의 사역
27. 성령님은 누구신가?
28. 성령님의 구원 적용
29. 교회란 무엇인가?
30.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 교회사 동화

11. 교부들의 유산
12. 이단들과의 싸움
13. 순교자들
14. 제국의 기독교
15. 교회 회의
16. 십자군 전쟁
17. 수도원 운동
18. 교회 개혁
19. 교단의 분열
20. 구학파와 신학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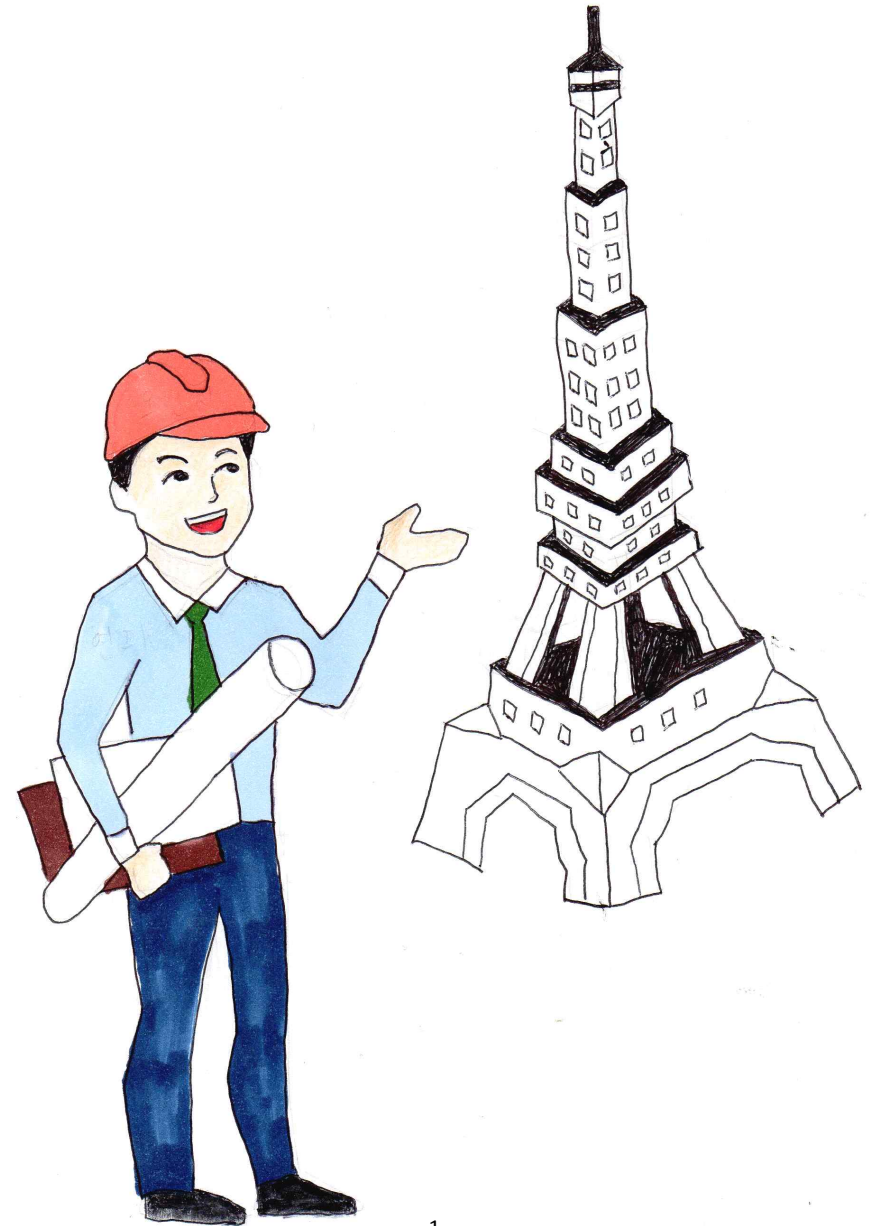
♥ 실천 동화

31. 성도의 윤리와 도덕
32. 목회와 교회정치
33.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34. 설교에 대하여
35. 세례와 성찬
36. 교회의 권징
37. 심방과 상담
38. 직업과 소명
39. 전도
40.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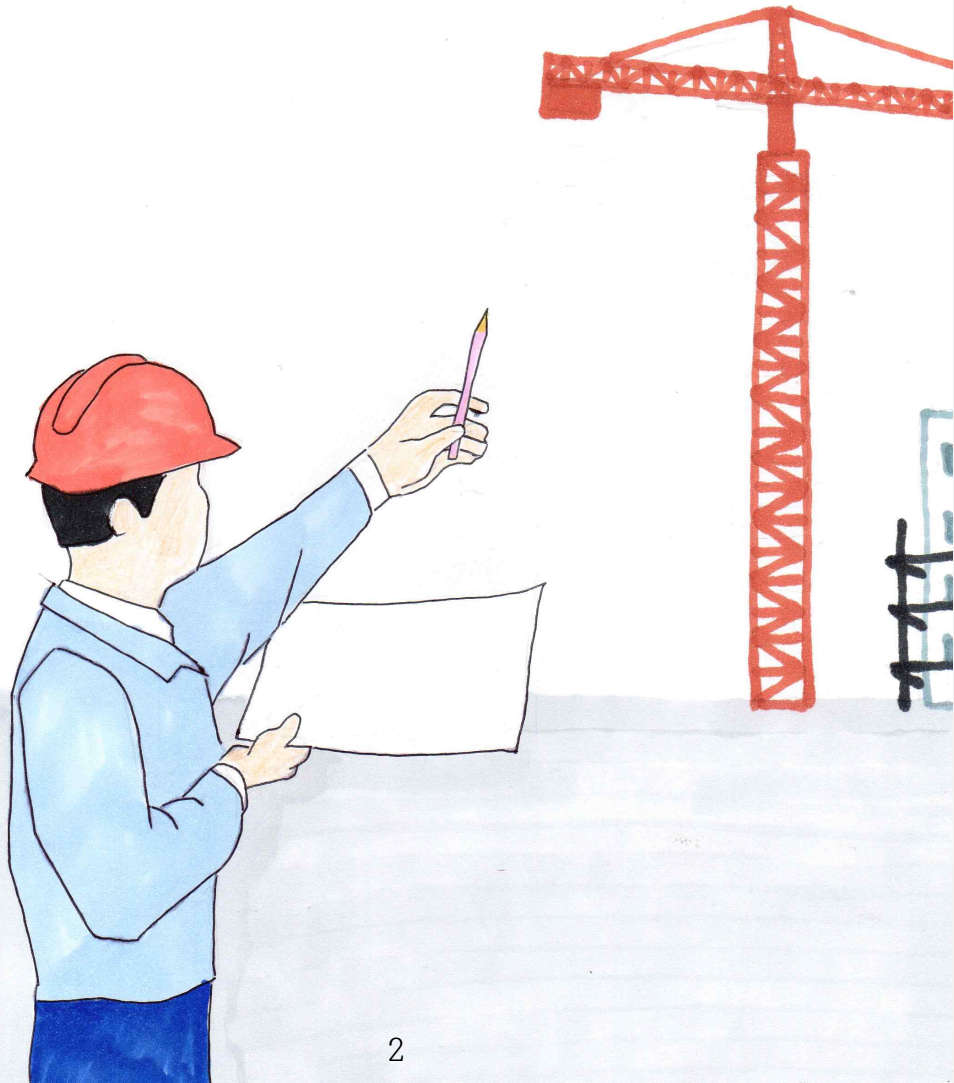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축물들은
그것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집을 짓는 사람들은 세 가지 일을 하지요.
 첫째, 집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진 이 세상을 마음대로 돌아가게 내버려두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만들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잘 돌아가게끔 순간순간 지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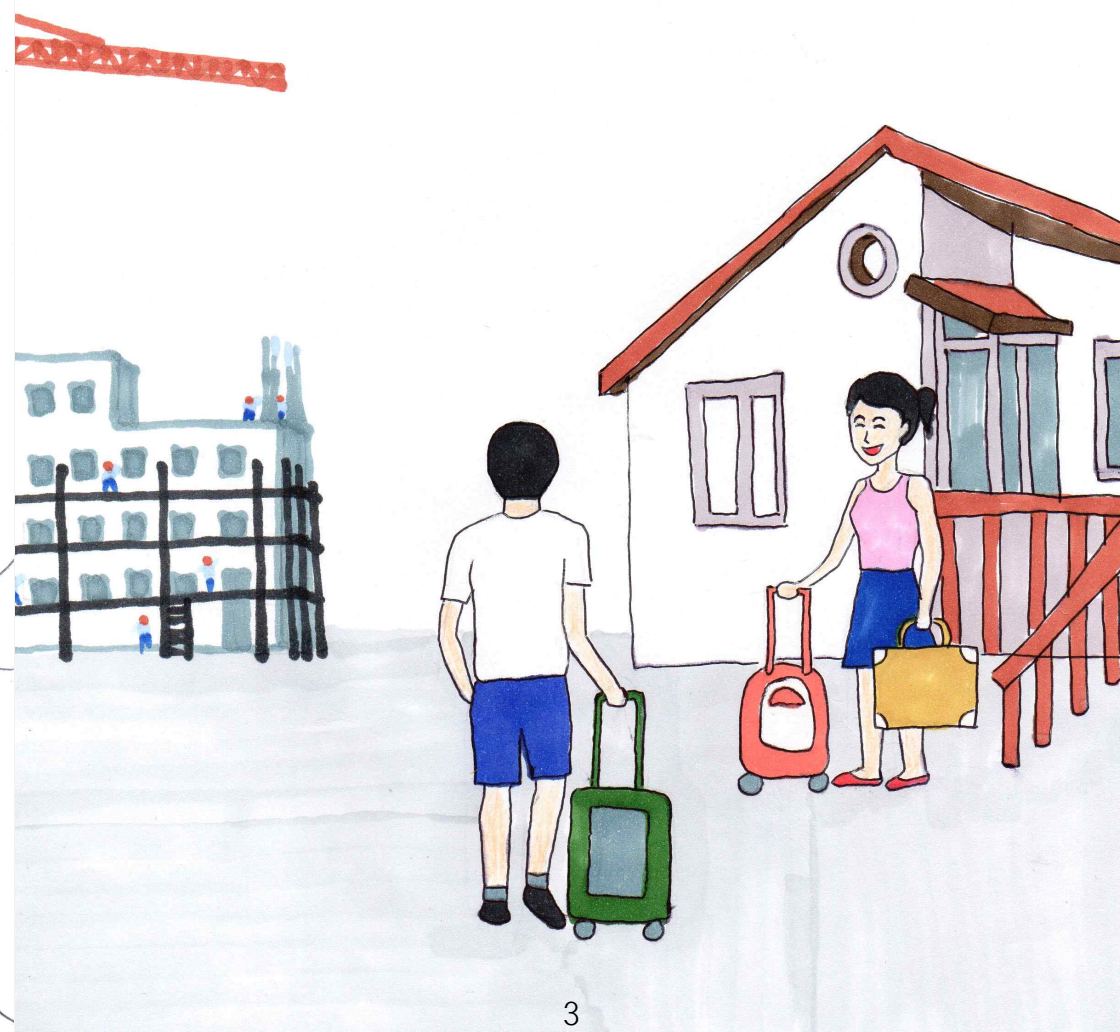
만일 한 순간이라도 세상을 지키는 일에서 손을 떼면
 세상은 어둠 속에 사라져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존재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음에 대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해요.



둘째, 일꾼들을 통해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짓고,
셋째, 지어진 집에 사람들을 살게 하지요.



이렇게 집이 사람에 의해 지어진다면
 사람을 지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모든 슬픔과 아픔과 죽음에서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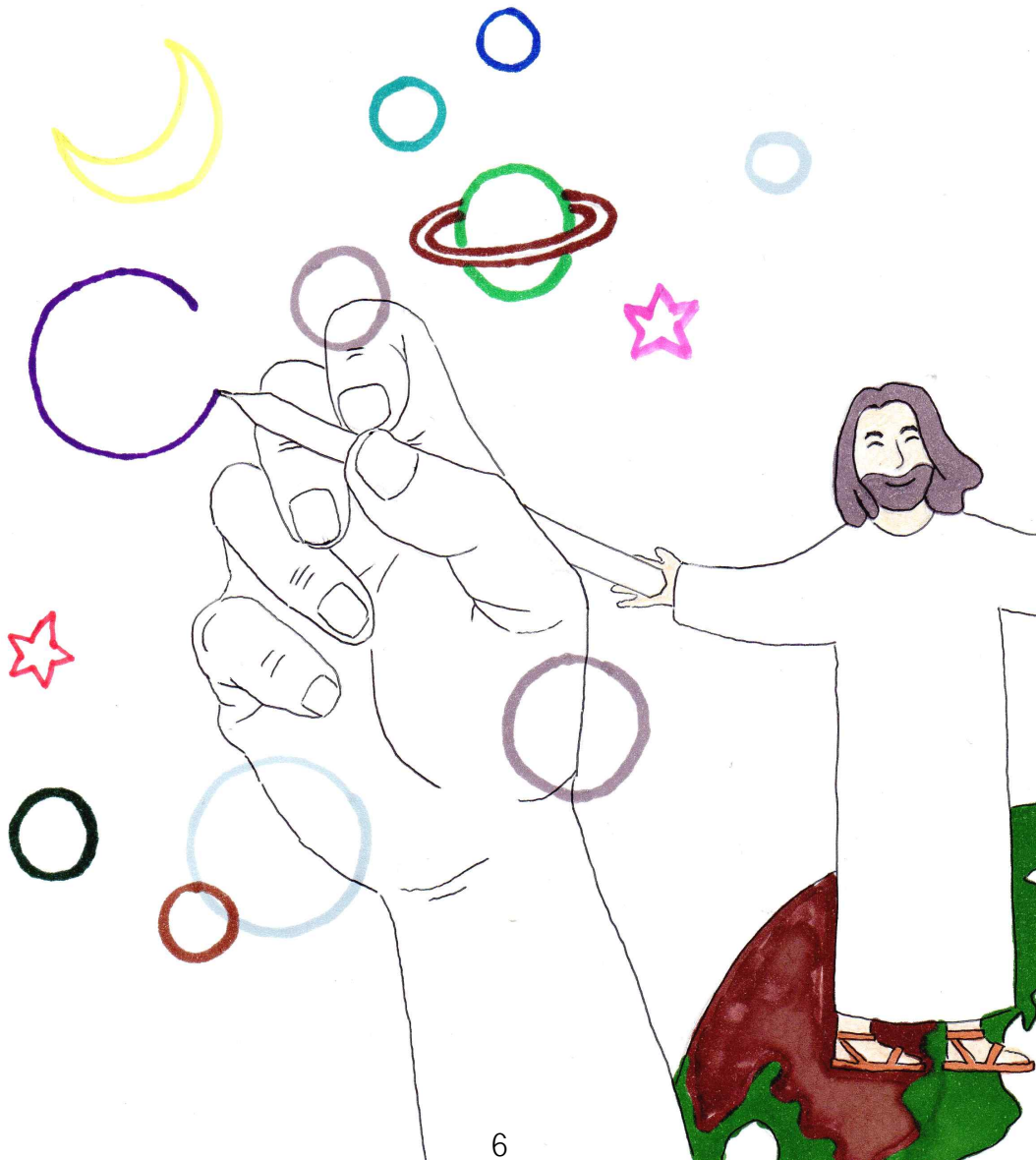
하나님의 창조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치 무서운 우박이 떨어지는 흐린 날씨에
 든든한 우산 아래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무엇인지 헤아려보아요.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지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6일만에 지으셨어요.
 6일이라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지으실지 설계하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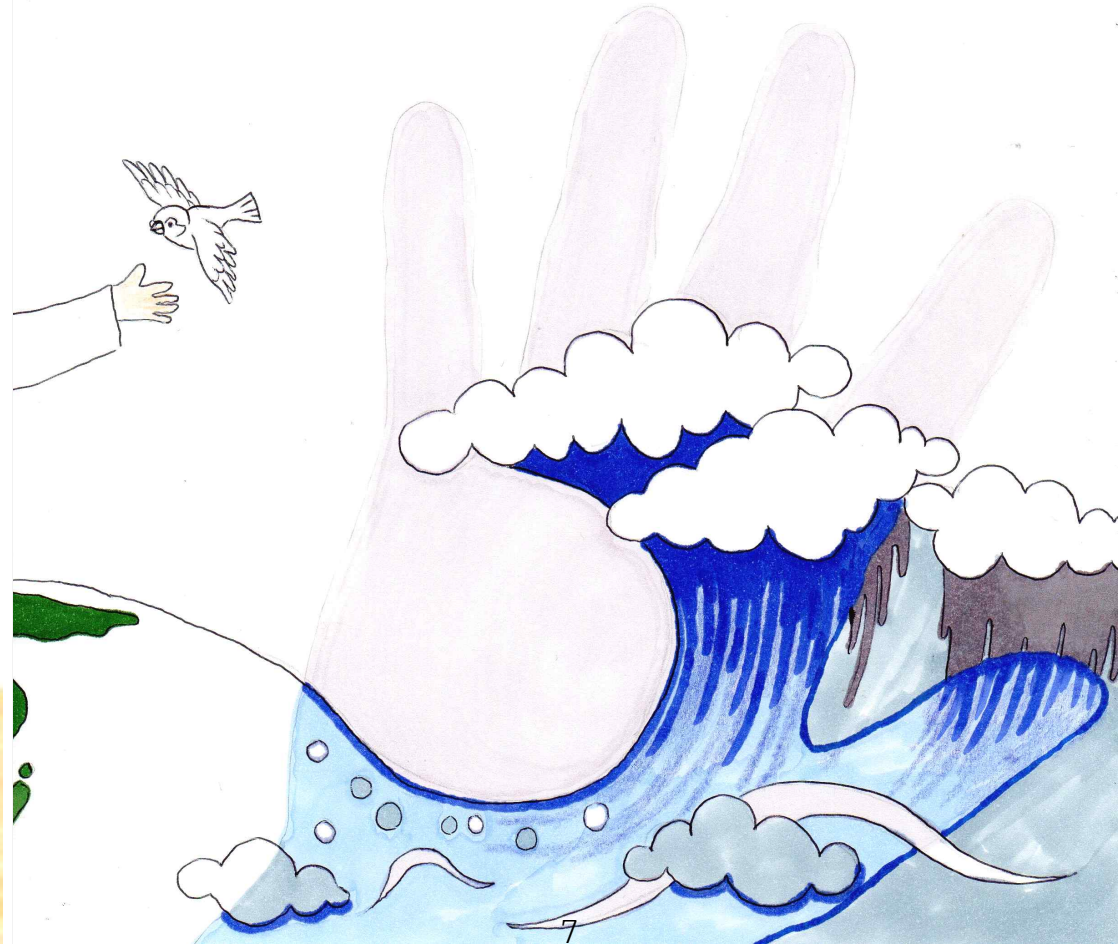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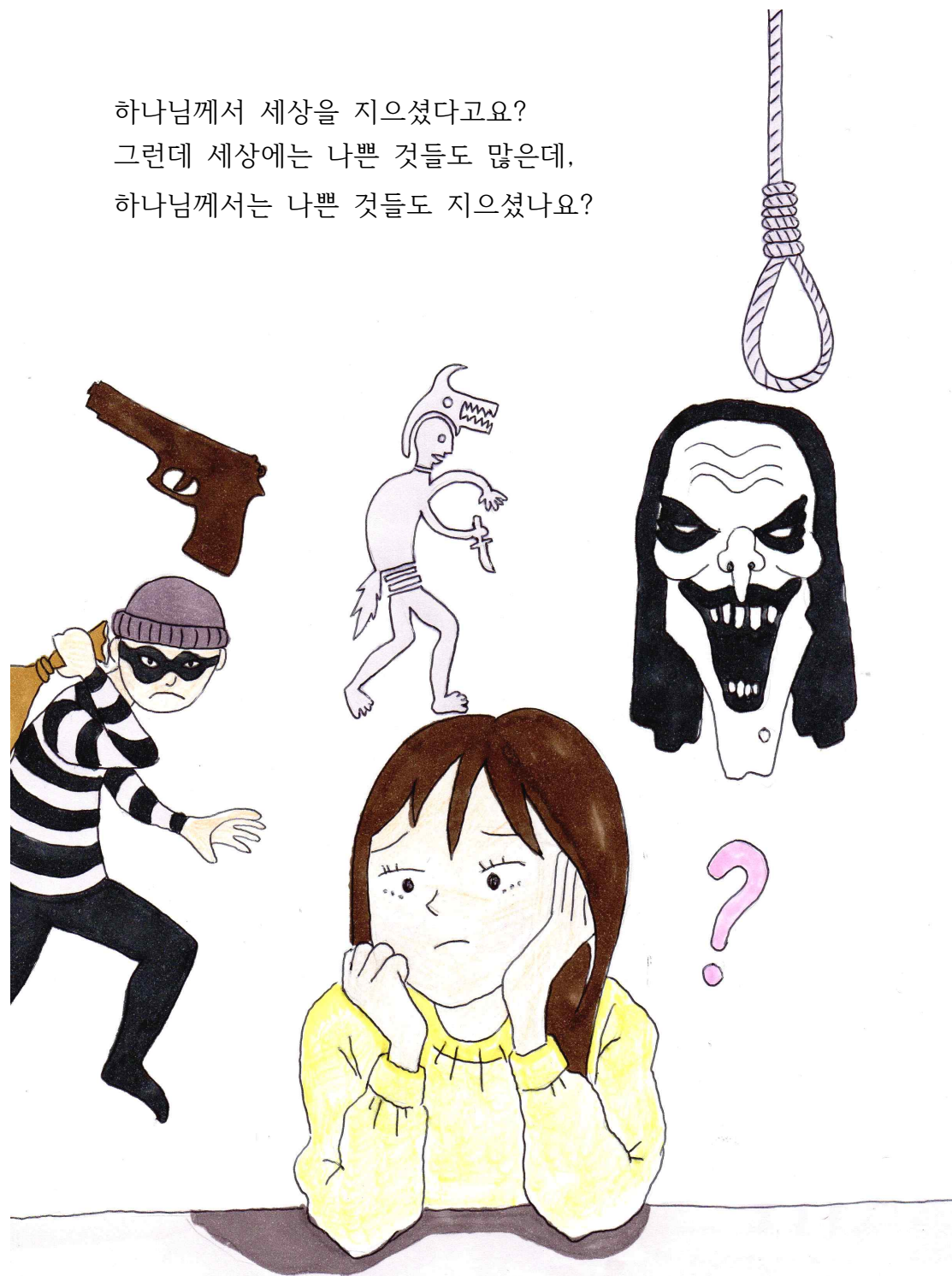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첫 번째 문답에 의하면,
목사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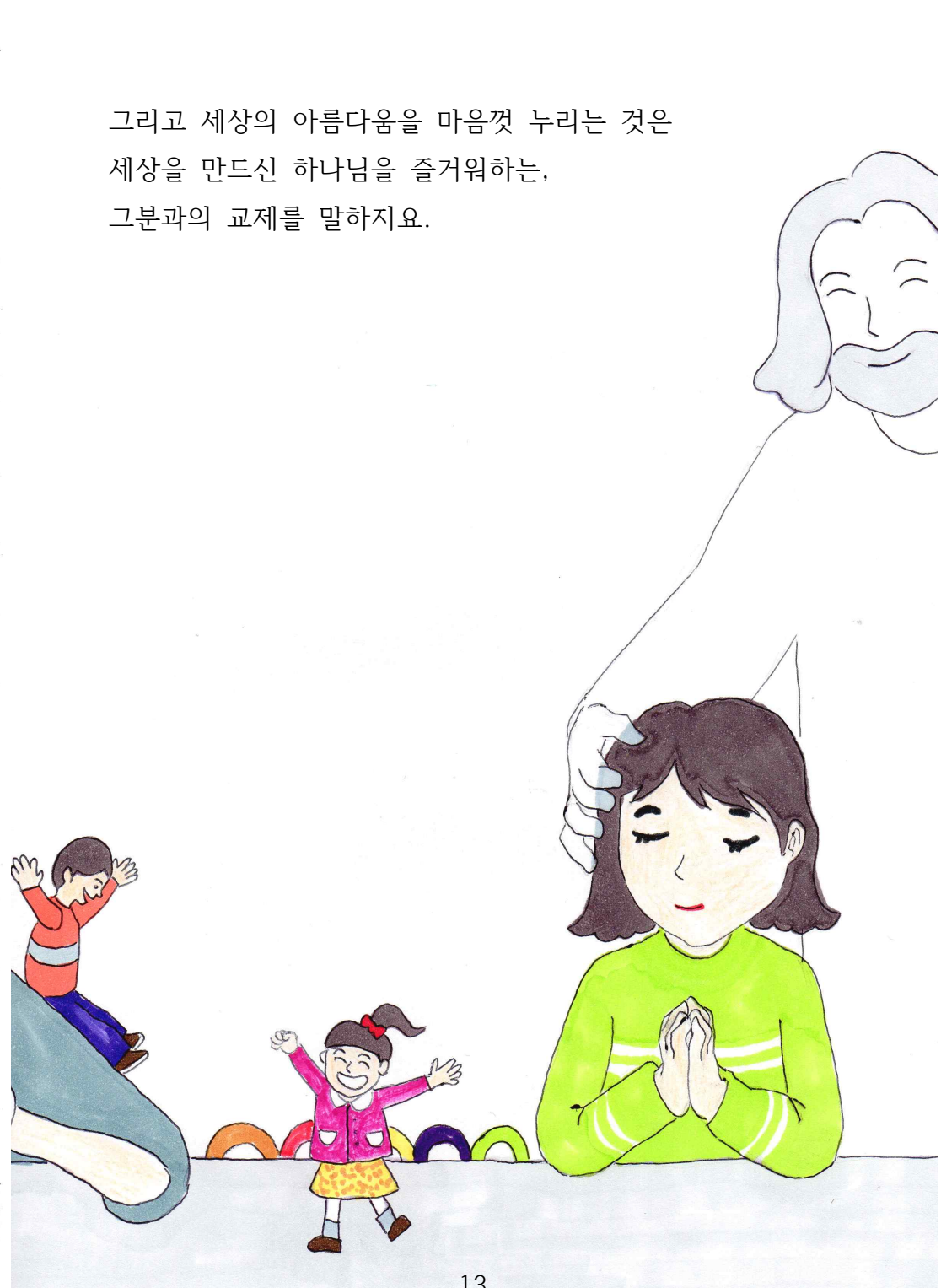
둘째, 아들이신 말씀을 통해 세상을 지으시고,
셋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진 세상을
생기로 아름답게 꾸미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세상에는 나쁜 것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쁜 것들도 지으셨나요?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분과의 교제를 말하지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하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좋고 아름다웠어요.

문제는 이 좋은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이 권리를 가지고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해요.
아마 나쁜 쪽을 선택했기에
세상에 나쁜 것들이 생기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좋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갈 임무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세상을 관리하는 일꾼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